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7. 11.(월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<총괄>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수빈 (02-2100-2833)

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

-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
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-

-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(7.11일)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

* (일시·장소) 2022.7.11.(월) 15:3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

-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高물가·高금리·高환율 등 최근 경제·금융 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,

- 시장 위협요인에 대한 **리스크관리**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,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취약계층**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·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

- 금융산업의 **혁신**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,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·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또한, “**일 잘하는 신뢰받는 금융당국**”으로 거듭나기 위해,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
○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, 새로운 제도로 인해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“현장밀착형” 행정과, “법과 원칙에 따른” 행정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,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금융정책에 힘을 쓸 것을 다짐하며,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<공동>	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	책임자	국 장	김정태 (02-3145-5900)
		담당자	부국장	박상규 (02-3145-5940)

